

월요광장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교수

작곡가 이진용 선생과 광주에서 만났다. 5월 10일 밤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싱가포르 차이니스 오케스트라 연주회의 첫 번째 곡으로 이관현 악단을 위해 위촉받아 쓴 그의 '5월을 위한 장엄 서곡'이 초연됐다. '차이니스 오케스트라' (Chinese orchestra)는 개량된 중국 전통악기를 쓰는 오케스트라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한국의 '국악관현악단'에 상응한다. 얼후, 생황, 비파 등 수십 종의 중국 전통악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관현악단이 광주의 '5월'을 노래한다는 것, 그것은 연주자들이나 청중 모두에게 특별한 음악적 만남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특별한 만남'이란 동어반복이다. 만남이란 언제나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면 만난 것이 아니다.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을 공유하는 이들끼리는 서로 '만나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광주에서 만나다

그들의 관계도 특별해질 때 새삼스레 '만남'이 된다. 요컨대 만남이란 낯선 것과 의 마주침, 새로운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접촉의 화학반응을 담고 있다.

넓게 보면 이 만남과 마주침의 역사가 '근대' (Moderne)다. 하지만 서양이 주도한 근대의 만남이란 종종 일방적 지배와 억압으로 귀결되었다. 서양이 비서양을, 정신(이성)이 몸(감성)을, 인간이 자연을, 남성이 여성을 그렇게 만났다. 하지만 21세기의 또 다른 '근대'는 그와는 다른 만남, 곧 지배하지 않는 수평적 만남을 요청하고 있다. 그 요청에 비서양, 나아가 한국이 속한 아시아가 응답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음악과 공연예술이 그 응답의 모델을 앞장서 제시해 보이고자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공연예술은 서로 다른 연주자와 청중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의 공연예술계 전반에서 중국과 한국의 만남은 두드러져 보인다. 지난 4월 서울의 국립극장에서 초연되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국립창극단의 창극 '패왕별희'가 대표적이다. 국립창극단은 대만에서 경극의 현대화에 힘써 온 연출가 우싱궈(吳興國)와 한국에서 판소리 현대화의 독특한 버전을 제시해 온 이자람의 '만남'을 유도했다. 의상과 제스처, 무술 연기 등 시각적 요소에서 비

교우위를 갖는 경극과 음 예술의 경지에서 장점이 두드러지는 판소리의 만남을 통해 양국 전통예술의 시너지 효과를 기한 것이다.

한중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정음성의 오페라 '망부운'도 특기할 만하다. 작년 12월의 예비 공연에 이어 지난 3월 말에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정식 공연을 마친 오페라 '망부운'은 하루는 한국 배역과 한국어로, 다음 날은 중국 배역과 중국어로 공연되었다. 이렇듯 이중언어의 사용, 소수민족 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의 소재 등 중국과 한국 양방향으로 열려 있는 텍스트의 유동성이 흥미로웠다. 작곡가와 텍스트에 공통된 이러한 경계성, 그 속에 잠재된 국제적 만남의 실현 여부가 앞으로 이 작품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게 될 듯하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관계는 고금의 역사가 보여왔듯 위계적이거나 비대칭적일 수 있는 가능성, 심지어 제국주의적으로 변모할 위험까지 내포한다. 서로 다른 국가나 민족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수평적 만남이란 어쩌면 예술의 세계에서만 상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백일몽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희망적이라 한다면, 예술이 종종 삶의 경계를 허물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융합되는 시대를 우리

가 살고 있다는 점이다.

10일 연주회가 끝나고 작곡가와 지인들, 그의 제자를 뺀과 함께 조선훈 아예는 빈대떡집에서 자정이 넘도록 막걸리를 나누 마시고 5월 광주의 밤거리를 거닐었다. 이 만남은 다음 날로 이어져 일행은 전날 밤 연주회가 있었던 곳, 첨단 시설을 갖춘 아시아문화전당 건물의 이모저모를 살피고 눈부신 5월 햇살에 비친 옛 전남도청 건물의 아스라한 기억을 더듬어 본 뒤 헤어졌다.

이들간 우리는 그렇게 아시아와, 광주와, 오랜 벗들과,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났다. 새로운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타자와의 조우, 그러나 동시에 지배와 폭력, 억압이 없는 수평적 만남, 그 만남을 꿈꾸고 실현하는 장소로서 광주라는 도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도시에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만남의 장소가 있다는 사실이 이다행스럽다.

법조칼럼

'동물 국회' 이젠 국민이 주인 역할 해야 할 때

추기는 것은 아닐까. 더러운 것 안보면 그만인 것이 아니다. 내 삶, 주변의 삶이 달려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보기 드문 대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도대체 왜 '패스트트랙'이 문제인지,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소위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검정 수사권 조정, 선거 관련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국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등의 비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공수처를 신설하고,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우만큼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법안에 대한 각당의 속내는 드러나기도, 때로는 숨어 있기도 해서 어떤 쟁점법으로 찬성과 반대 진영이 짜여 쪼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앞으로도 유동적일 것이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위 세 법안에 동의했고, 논의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응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안건 신속 처리, 소위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위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보임'이라는 이슈가

社說

10년 답보 서남해안 관광벨트 조기 가시화를

10년째 답보 상태였던 서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서남해안 관광도로 연도교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신안 압해도와 압태도를 잇는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의 민선 7기 핵심 사책인 '서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는 전남-경남-부산을 잇는 서남해안을 광역 관광권으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오는 2029년까지 4조 원을 투입해 해양관광 도로와 관광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남의 경우 목포권 근대문화 역사특구와 고향도 해상 테마파크, 여수권 마이스 산업 등 전략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신안 자은 해양관광단지, 해남 국민 휴양마을 등도 추진한다.

김영록 전남 지사는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지난주 시장·군수들과 함께 신안 천

사대교와 목포 달리도,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등을 둘러보며 직접 진두지휘에 나섰다. 현장 투어에서 단체장들은 서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와 시군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협의하기로 했다.

남해안권 개발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남해안 선벨트' 조성을 추진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현 정부 들어 지난 1월 서남해안 관광도로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과 여수 화대-백야 간 연도교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광역 관광벨트 조성은 과거 사례에서 보듯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뒷받침 없으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만큼 정부는 핵심 인프라인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남해안 철도, 크루즈 노선 개설 등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문화전당 '미디어월' 등 철거 심사숙고해야

아시아문화전당이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옛 전남도청 본관 등 5개 동(공사 중인 상무관 제외)을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전면 개방한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은 5·18을 가-승-전-결의 서사로 그려 낸 '열흘간의 나비떼' 중 일부 구축된 전시 콘텐츠를 옛 도청 일원에서 볼 수 있다. 한때 민주평화교류원에 설치된 이 '열흘간의 나비떼'를 비롯해 그동안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 온 '미디어월' 등이 전남도청 복원 사업과 맞물려 오는 2021년 철거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작정 철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를 준다는 논의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도 그럴 것이 2017년 5월 설치된 '열흘간의 나비떼'는 5·18민주화운동의 항쟁 과정을 형상화한 콘텐츠이며 콘텐츠 구축 비용 80억 원과 옛도청 리모델링 비용 170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고음질의 다채널 음향시스템을 구축한 국내 최초 멀티미디어 플랫폼 '미디어월'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미디어월'은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에게 알리는 전당의 랜드마크로서, 최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재지정된 광주가 시민들과 함께 창의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이들 시설은 오는 2021년 철거 공사에 들어가 이듬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디어월은 향후 문화전당의 미디어 아트 발전 전략 및 홍보 등과 일정 부분 맞물려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철거 후 재설치 여부 및 철거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미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이들 콘텐츠 역시 중요한 문화 자산인 만큼 철거와 존치 방안 등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한 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기고

통일이 복지다

평화롭고 잘사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가 중요하다. 남과 북의 모든 시민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때 통일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통일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군사 지출을 줄여 생기는 재정을 복지 지출로 돌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분단 상태에서 통일을 이룬 독일은 통일 이후 병력을 절반 정도 줄인 경험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통일을 이룬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통일은 경제 발전에 굉장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일이 되면 미개발 상태인 북한 지역에 대한 사회간접 자본 건설 붐이 일게 된다. 도로와 철도를 놓아야 하고 통신망을 깔아야 한다. 광항이나 항만도 모두 새로 정비해야

의 사건에 수사지휘를 행사하는 현재의 검찰 권한에 미칠 바 못 되어 경찰은 반기는 법안이다.

선거법 개정 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 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하고, 비례 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은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여 정하며, 선거권 및 선거 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례 대표가 늘고, 정당에 대한 지지 투표수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같은 거대 정당은 비례 대표 의원 수가 크게 줄 가능성이 높다. 소수 정당들은 양당제 구조를 타파할 법안이라 기대하고 있다.

각 법안에 대한 각당의 속내는 드러나기도, 때로는 숨어 있기도 해서 어떤 쟁점법으로 찬성과 반대 진영이 짜여 쪼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앞으로도 유동적일 것이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위 세 법안에 동의했고, 논의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응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안건 신속 처리, 소위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위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보임'이라는 이슈가

발생한다. '사보임'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각 정당이 자신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을 위원으로 보임하거나 사임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위 법안에 합의한 야당'에 소속된 상임위원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자 해당 야당에서 그 위원을 사임하고 새로운 위원을 보임했으며, 국회의장은 이를 수락했다. 여기서 국회법 위반 논쟁이 불붙게 되나, 유사 사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국회법 위반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위 법안들의 내용이 쉽지 않고, 민생과 직접 관계가 없어 결국 밥그릇 싸움이 야나냐고 폄하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다만 형사 제도와 절차,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3정당의 약진에 따른 국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다.

성은 관점이 무엇이든 주어진 건마가 무엇을 하든지, 혹 사심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 등은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자 압박하고 있다. 시끄러운 수목 차분히 지켜보며 주인 행세를 해야 할 때다.

서정성

광주 남구의회사회장·아이안과 원장



광복군 출신으로 박정희 정권과 맞서 싸웠던 장준하 선생은 "모든 통일은 선(善)"이라고 말했다.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분단에 있다고 인식에 기초한 말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모든'이라는 표현은 이제 수정해야 한다. '모든' 통일이 선이 아니라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이 선이라고 바꿔야 한다.

분단 체제를 끝내고 남과 북이 새롭게 하나의 나라로 재탄생한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미래는 퇴행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 한국은 분단 상태인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잘사는 나라여야 한다.

기고

통일이 복지다

평화롭고 잘사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가 중요하다. 남과 북의 모든 시민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때 통일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통일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군사 지출을 줄여 생기는 재정을 복지 지출로 돌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분단 상태에서 통일을 이룬 독일은 통일 이후 병력을 절반 정도 줄인 경험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통일을 이룬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통일은 경제 발전에 굉장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일이 되면 미개발 상태인 북한 지역에 대한 사회간접 자본 건설 붐이 일게 된다. 도로와 철도를 놓아야 하고 통신망을 깔아야 한다. 광항이나 항만도 모두 새로 정비해야

힘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 한국의 시민들은 지금보다 더 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통일은 우리나라 복지의 수준을 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높게 될 기회 요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모두 통일이 평화롭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것을 전제로 한다. 통일은 남과 북 시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럴 수도 없겠지만 절대 남과 북 시민의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는 통일을 추진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급격한 통일 추진이 가져올 폐단과 부작용을 고려해 통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현 정부가 정치 통합보다 경제 통합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먼저 남북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의 번영이라는 토대 위에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다가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복지의 통합까지 이뤄낸다면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 한국의 꿈은 더는 꿈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無等鼓**

얼마 전 막을 내린 트로트 오디션 '미스트롯'이 장안의 화제다. 지난 2일 최종회 시청률이 평균 18.1%로 종편 사상 최고 예능 시청률을 기록했다. 가요계의 비주류인 트로트를 무명 가수들의 오디션 방식으로 풀어 낸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추억과 감동을 안겨 주었다. 비단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들에도 편곡과 같은 다양한 변주를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맛을 선사한 것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가수는 진도 출신 송가인이었다. 그녀는

얼마 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다고 하는데, 이는 '소리의 고장' 진도에서 나고 자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진 일상에 위로가 되고 심금을 울리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남달랐던 그녀는 광주예고와 중앙대에서 국악과 판소리를 전공했다. 국가무형문화재 72호 진도 씻김굿 전수조교인 어머니와 아쟁을 연주하는 오빠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프로그램 마스터로 참여했던 노사연은 "트로트에 타 일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1대 '미스트롯'에

**송가인**

등극했다. '한 많은 대중강'부터 '영두산 엘레지', '영동부르스', '단장의 미아리'고 개개까지 예선과 결선에서 불렀던 노래는 트로트의 격을 한 단계 높였다든 평가다. 울림이 있는 음색과 독창적인 재해석, 타고난 가창력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가수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의 모습이었다.

오랜 무명을 견디면서도 비인기 장르인 트로트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한' (恨)으로 상징되는 남도의 힘이었을 것 같다. 송가인은

있는 게 큰 매력이다. 송가인은 타고났다"며 이색적인 평을 하기도 했다.

수년 전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일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대사가 유행한 적이 있다. 일류, 일등, A급만을 인정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풍자한 말이다. 그러나 대중들은 비주류, B급, 이류의 이면에 드리워진 날갯짓의 진정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알아본다. 1%가 아닌 99%의 세상을 꿈꾸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